

찬양페스티벌 평가회

2023.07.26

- 일시: 2023.07.22(토) 20:00~20:40
- 장소: Zoom
- 참석자: 허만선 장로, 박노익 장로, 김상열 장로, 박요셉 목사, 이천주 집사, 최은빈 집사, 김지윤 집사 (총 16명 중 7명 참석)

성명	잘된 점	아쉬운 점
이천주	청년들이 참여하여 좋았음	프로그램북 제작 시 디자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사전에 알려 주었더라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음 (편집 디자인 Tool인 indesign에 대한 안내 등)
박노익	잘 진행되었으며 은혜 많이 받음	- 청년들 외에 장년들의 참여가 없었음 - 통상적인 스타일 찬양이 없었음 - 신청 받을 때 참여기준 제시가 미흡했음 (곡 장르, 악기 사용, 전공자 제한 등)
김지윤	- 준비를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음 - 진행요원들이 훌륭하였음	교회 내 찬양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할 것임
박요셉	- 새로운 시도였음 - 청년들의 많은 참여가 희망적이었음	- 기획 초기단계에서 방향성에 대해 많은 고민이 있었음 - 온라인투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었음 - 장르(랩) 및 악기 사용에 점진적인 개방이 필요함
최은빈	- 참석한 성도들이 매우 긍정적이었음 - 행사 준비를 많이 했다는 느낌을 받음	- 행사 시간이 제한적이라서 쫓기듯이 진행 - 금상 수상소감 시간에 원래 큐시트대로 움직이지 않아 동선이 꼬임
허만선	- 행사 내내 재미있었고 즐거웠음 - 점진적인 변화를 시도한 것에 의미가 있음	- 찬양 행사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 좀 더 고민이 필요해 보임 - 장년층 출전팀이 없어서 아쉬움
김상열	TFT 팀원들의 협조가 잘 이루어짐	초기 기획단계에서 행사 방향이 정해지지 않아 갈팡지팡함 (야외 또는 실내 행사 여부, 찬양제 또는 경연대회 여부 등)

성명	잘된 점	아쉬운 점
최규옥 (문자)	• 사회자 섭외 매우 성공적	• 본선팀이 진행팀 통제를 잘 따르지 않음 • 리허설 일정도 본인들 편리한 시간에 맞추고, 정한 시간에 본당 착석 요청했으나 지각 입장